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SPECIAL THEME:

뮤지컬 <레드북>

예술과
꿈



2026
02+03
VOLUME 178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6년 02+03월
통권 178호
ISSN 2234-5949



발행일 2026년 2월 3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임선미
편집 담당 김규량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SPECIAL

- 04 VIEW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질 때까지
뮤지컬 (레드북) 감상 포인트
- 10 THEME
작은 가능성에서 브로드웨이의 찬사까지
60년 한국 창작 뮤지컬이 걸어온 길
- 14 INTERVIEW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경아

STAGE

- 18 PREVIEW
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수놓는 그 황홀한 봄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②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뮤지컬 (메리골드)
- 26 REVIEW
① 탁월한 협연, 눈물의 피날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② 웃음 끝에 남은 가족의 얼굴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③ G-ARTS 원년 2025년, 경기도 곳곳 문화예술을 잇다
경기아트센터 2025년 돌아보기

INSIGHT

- 38 ART AND THE CITY
멜버른을 중심으로 훑는 호주의 공연예술: 도시가 무대를 짓는 방식
- 44 ATTRACTION
서울과 세계 사이에서: 공연예술을 통해 발견한 경기도
- 50 ART TALK
경기 자연 속 그림 같은 문화예술의 마을
'별난독서문화마을' 관해경 대표와의 인터뷰
- 54 ON & OFF
공연장 밖 예술, 일상 속으로 스며든 무대
- 56 ESG & ART SCENE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함대'의 시작

GGAC STORY

- 60 ZOOM IN
관객 기다리는 공연장으로 고양이 걸어가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낭이 직원들의 출근기
- 64 GGAC NEWS
- 66 CALENDAR
- 68 EPILOGUE



민경아 뮤지컬 배우



만남

MINI INTERVIEW

“제7회 예그린어워드 4개 부문, 제3회·제6회 한국뮤지컬어워드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레드북>. 이번 공연이 네 번째 시즌인데요. 이번 시즌은 특히 극장이 더 커지면서 세트와 영상 디자인의 변화가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어요. 무대 위에 펼쳐지는 시각적 이미지들이 훨씬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안나의 내면세계와 감정선이 영상과 맞물려 더 깊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무대 위에서 더 입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시적인 여운과 상상력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SPECIAL



VIEW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질 때까지
뮤지컬 <레드북> 감상 포인트

THEME

작은 가능성에서 브로드웨이의 찬사까지
60년 한국 창작 뮤지컬이 걸어온 길

INTERVIEW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경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질 때까지

뮤지컬 <레드북> 감상 포인트



“여러분! 로렐라이 언덕의 새로운 잡지, 레드북이 나왔어요.”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과 규범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말하는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가?

뮤지컬 <레드북>이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률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이다.

글. 최상미(공연전시 인플루언서 해오름달, 서울자치신문 객원기자) | 사진. (주)아떼오드

고전적 서사 위에 놓인

현대적 시선

뮤지컬 <레드북>이 2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관객과 만난다. 보수적인 19세기 말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숙녀'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안나와 그녀를 통해 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깨닫는 브라운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레드북>이 도달하는 지점은 단순히 '안나'라는 한 개인의 여성 서사나 시대극에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이 끝내 묻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타인이 규정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여성의 글쓰기와 신체에 대한 언급이 사회적 금기로 여겨지던 시대, 안나는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숨기지 않고 기록한다. 그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사회가 허용한 언어의 경계를 넘는 선택이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레드북>의 서사는 구조적으로 고전적이다. 약혼자에게 첫 경험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안나는 도시로 떠나 홀로 살아간다. '순결'이라는 기준이 개인의 가치를 재단하던 시대, 그의 선택은 곧 사회적 추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이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갈등을 통과하는 태도는 분명히 현대적이다. <레드북>은 안나의 삶을 성공담이나 극복담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 내는가에 끝까지 시선을 둔다.

'여성의 가장 훌륭한 직업이자 덕목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인 시대에 그것을 거부하고 당당히 미혼 여성으로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며 살아가는 안나의 모습은, 1막 첫 장면에서 어떤 이에게는 '좀 특이하지만 상냥한 아가씨'로, 또 어떤 이에게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X'으로 엇갈리게 표현되며 이러한 서사와 시선의 시작을 잘 담아낸다.

여기서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상상이다. "난 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해."라는 안나의 대사는 억압된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자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레드북>은 욕망을 비난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인간의 일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붙드는 언어로 인정할 뿐이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서사를 특정 성별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는 데 있다. 타인이 정한 기준에 의해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험은 시대와 성별을 넘어 누구에게나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침묵이 규범이던

시대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성별에 따라 불균등했다. 남성에게 시민의 자리가 열렸다면, 여성에게 허락된 역할은 여전히 '숙녀'였다.

교육의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지만, 여성은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아내와 어머니로 길러졌다. 글을 읽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언어로 드러내는 일은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 여성 작가들이 남성 필명을 사용하거나 도덕적 서사 뒤에 자신을 숨겨야 했던 이유다. 이 시대의 질서는 노골적인 폭력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침묵은 규범이 되었고, 검열은 개인의 안으로 들어왔다.

안나는 침묵이 규범이던 세계에서, 말하기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욕망을 숨기지 않고 기록한다. 그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사회가 허락한 언어의 경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레드북>은 이 침묵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간이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숙녀’와 ‘신사’라는 한계

〈레드북〉이 흥미로운 지점은 ‘숙녀’와 ‘신사’라는 개념을 단순한 시대적 장치로 소비하지 않는 데 있다. 작품은 이 규범들이 어떻게 개인의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는지, 그 규범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드러낸다. 오프닝 넘버 〈난 뭐지〉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유머와 풍자로 풀어낸다. 말투, 옷차림, 감정 표현, 심지어 사고의 범위까지 규정하는 사회 속에서 안나는 늘 기준에 벗어난 존재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 장면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 할 때, 사회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브라운은 그 언어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해 온 인물이다. 법률가이자 문학 애호가인 그는 논리와 질서를 중시하며, 감정과 욕망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넘버 〈신사의 도리〉에서 브라운은 친구들과 함께 신사로서의 덕목을 실천하며 자신의 멋짐에 도취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은 유쾌하지만, 동시에 정확하다. ‘신사’라는 도덕적 이름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맞추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그 언어 속에서 자신도, 타인도 이해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안나를 만나며 브라운은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인물로 변화한다. 브라운의 변화는 흔히 말하는 ‘구원 서사’와 다르다. 안나의 글을 읽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립과 폭력을 마주하면서 그는 자신이 믿어온 질서가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배제해 왔는지를 깨닫는다. 그는 안나를 이해함으로써 그가 믿었던 세계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더 불편한 세계를 선택한다.

듀엣 넘버 〈당신도 그래요〉는 흔한 로맨스 넘버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곡이 말하는 이해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서 있던 자리의 특권을 인식하는 일임을 이 작품은 조용히 보여준다.



**〈레드북〉이 흥미로운 지점은 ‘숙녀’와 ‘신사’라는 개념을
단순한 시대적 장치로 소비하지 않는 데 있다.
작품은 이 규범들이 어떻게 개인의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는지,
그 규범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드러낸다.**





로렐라이, 삶의 다른 방식

로렐라이는 <레드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이다. ‘여장남자’라는 설정은 단순한 캐릭터 장치가 아니라, 이 작품이 규범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 가깝다. 그는 여성 문학회 ‘로렐라이 언덕’을 이끌며, 제도 바깥에서 스스로의 언어를 가진 공동체를 만든다.

이 공동체는 안나에게 최초의 ‘안전한 공간’이다. 넘버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은 미숙하지만 분명한 합창이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작가가 아니지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침묵하는 존재로 살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곳에서 안나는 자신의 표현을 배우고, 자신만의 글로 자기 목소리를 시험한다.

여기서 로렐라이의 방식은 싸움이 아니다. 그는 규범에 맞서기보다, 웃음과 유희로 그것을 비틀고 무력화한다. 그의 존재 덕분에 <레드북>은 상처의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작품은 로렐라이를 통해, 이미 다른 삶은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관객은 이 인물을 통해, 타인이 규정한 모습이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숨겨진 사연들과 함께 목직함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
옥주현



●
아이비



●
민경아

무대와 음악, 감정의 결을 그리다

이번 시즌 <레드북>은 무대적 완성도에서도 분명한 진화를 보여준다. 극장 규모가 커지면서 세트와 영상 디자인이 변화했고, 안나의 내면세계와 감정선이 영상과 맞물려 더 깊게 전달된다.

음악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 그 결을 따라간다. <낮은 침대를 타고>에서 터져 나오는 해방감,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에서 느껴지는 교묘한 확신은 이 작품이 말보다 음악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감정의 과잉 대신, 감정의 존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캐스팅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가 표현하는 ‘안나’의 솔직하고 당찬 매력,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이 채우는 ‘브라운’의 다채로운 면모가 각기 다른 결로 작품을 완성한다.

펜을**놓지 않는다는 것**

2막 중반, 안나는 평론가 존슨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는다. 화가 난 안나가 그의 급소를 차버리자, 앙심을 품은 존슨은 시민들에게 돈을 건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출판물법 위반 혐의로 안나를 기소한다. 사회는 사건의 맥락을 소거한 채 그녀를 '위험하고 음란한 여자'로 낙인찍는다. 피해자는 바뀌고, 안나는 유치장에 갇히고 레드북은 폐간의 위기를 맞는다.

이때 안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는다.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거창한 의의보다, 자신의 글에 동의해준 독자를 배신할 수 없었다. 안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를 말하는' 방법이었다.



● 송원근



● 지현우



● 김성식

여전히,**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해피엔딩일까? <레드북>은 말한다. 비록 세상이 한 번에 바뀌진 않더라도, 누군가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의 목소리들이 더해질 때 함께 위기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과거형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안나의 시대를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안전한 침묵과 거짓말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따뜻한 위로와 유쾌한 웃음 속에 단단한 질문을 품은 뮤지컬 <레드북>은 경기아트센터에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번 시즌 마지막 관객을 만난다.

작은 가능성에서 브로드웨이의 찬사까지

60년 한국 창작 뮤지컬이 걸어온 길

‘N차 관람’, ‘뮤덕’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동안, 우리 고유의 대본과 음악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은 오랜 시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흥행의 안전지대는 늘 검증된 해외 유명 뮤지컬의 라이선스 공연 작품이었고, 창작 뮤지컬은 척박한 실험과 도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1966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 창작 뮤지컬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축적을 거쳐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 장르로 성장했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올려지는 창작 뮤지컬 <레드북>을 들여다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인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주요 작품들을 모아 본다.

글 편집실

60 YEARS OF
KOREAN
ORIGINAL MUSICALS:
FROM THE MARGINS TO
BROADWAY

1966

<살짜기 읊서예>

화제의 시작

“세상에 마음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1966년 10월, 서울 시민회관 무대에서 예그린악단이 선보인 <살짜기 읊서예> (극본: 임영웅, 당시 예그린악단 기준 통상적 표기)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전 소설 <배비장전>을 원작으로 판소리의 리듬과 대중가요, 서양 쇼 뮤지컬의 형식을 과감하게 버무린 이 작품은 당대 최고의 가수 패티김을 주연으로 내세워 큰 화제를 모았다. 단 7회 공연에 1만 6천여 명의 관객이 몰렸다. 이는 단순한 흥행 성적을 넘어, 우리의 창작 가능성을 현실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 후 예그린악단을 중심으로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무대에 올리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작품의 수나 규모 면에서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야기로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에 대한 갈망이 공연계 내부에 자리 잡은 중요한 시기였다.



사진 출처: KTV <다시 보는 문화영화> 보도자료.

1995

〈명성황후〉

대극장 창작의 신호탄

“나는 조선의 국모다.” 1995년,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에 뚜렷한 이정표가 세워진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라는 대극장 무대에서 초연된 〈명성황후〉(극본: 이문열)는 창작 뮤지컬도 상업적·예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 작품이다. 조선 말기의 격동하는 역사를 배경으로, 웅장한 음악과 드라마틱한 서사, 대규모 무대 제작이 결합한 이 작품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97년에 일어났다. 〈명성황후〉가 아시아 창작 뮤지컬 최초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것이다. 비록 브로드웨이에서 장기 흥행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 무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첫 사례인 셈이다.



사진 출처: Musicals of Korea 아카이브.

2004

〈지킬 앤 하이드〉(라이선스 작품)

한국어 초연과 대극장 창작의 기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2004년 초연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원작: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는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승우, 박은태 등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탄생했고, 무엇보다 대형 뮤지컬의 제작 시스템과 안정적인 관객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다져진 인프라는 곧 창작 뮤지컬의 토대가 되었다.

2005

〈빨래〉

소극장의 기적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2005년 처음 무대에 오른 〈빨래〉(극본: 추민주)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웅장한 서사 대신, 이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그 안의 섬세한 감정에 집중했다. 대학로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공감 가능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과 깊이 호흡했다. 〈빨래〉는 10년 넘게 장기 공연되며 누적 관객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극장 블록버스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 뮤지컬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규모보다는 완성도로 승부를 건 이 작품은 이후 수많은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모델이 되었다.



사진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사이트.

2006 <김종욱 찾기>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첫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06년 초 연된 <김종욱 찾기>(극본: 장유정)는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의 전형을 만들었다. 현대인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오랜 사랑을 받았다. 남녀 주역뿐 아니라, 한 배우가 22역을 소화하는 ‘멀티맨’의 존재가 무대의 재미를 극대화한 작품이기도 하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창작 뮤지컬 마니아층은 <빨래>, <김종욱 찾기>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사진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사이트.

2010 <광화문 연가> 역사를 무대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들도 계속 등장했다. <박정희>(2007), <광화문 연가>(2010)(극본: 고선웅) 등은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뮤지컬의 언어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모든 작품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창작 뮤지컬이 다룰 수 있는 소재와 주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문학의 뮤지컬화

“사랑은 죄가 아니야. 아픈 것뿐이지.” 괴테의 고전을 원작으로 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극본: 조광화)은 문학 작품을 뮤지컬로 각색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원작의 서정성과 감정의 깊이를 음악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젊은 관객층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대학로 뮤지컬 무대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2016 <마타하리> 글로벌 스탠다드

“나는 조국도, 신도 믿지 않아. 나 자신만을 믿을 뿐.” 2016년 초 연된 <마타하리>(극본: 아이반 멘첼)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제작 수준이 세계적 기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1차 세계대전 시기 스파이로 활동한 마타하리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해외 창작진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으며, 음악과 무대, 연출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이후 일본, 중국 등지에서 공연되며 ‘K-뮤지컬’의 수출 가능성을 현실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



사진 출처: EMK뮤지컬컴퍼니 공식사이트.

2018

〈웃는 남자〉

프랑스 진출의 쾌거

“웃음은 약자의 마지막 무기다.” 2018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극본: 로버트 요한슨)가 무대에 올랐다. 아름다운 음악과 강렬한 드라마로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2020년 소설의 배경이 된 프랑스에서 역으로 공연되며 현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사진 출처: EMK뮤지컬컴퍼니 공식사이트.

2025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정복

“사랑은 사라져도, 남아 있는 게 있어.” 2025년,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쩌면 해피엔딩〉(극본: 박천휴)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공연예술상인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한 것이다. 2016년 국내 초연 이후 꾸준히 해외 공연을 이어온 이 작품은 낯은 헬퍼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고독과 연결, 그리고 희망을 보편적인 언어로 그려냈다. 이제 한국 뮤지컬은 세계 무대에서 보편성과 완성도를 인정받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1966년 명동의 한 무대에서 시작된 도전이 60년의 시간을 거쳐 브로드웨이에서 여섯 개의 트로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진 출처: 마이리얼트립 공식사이트.

그리고

〈레드북〉

이후의 이야기

이제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레드북〉(2018년 초연) 역시 이 긴 여정의 한 부분이다. 〈레드북〉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여성의 목소리와 자기 서사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젠더 감수성과 동시대적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끌어안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60년간 쌓아온 제작 시스템, 창작진의 역량, 배우들의 기량,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와 방식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무대 위에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사진 출처: (주)아떼오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거에는 고전과 역사에서 소재를 찾았다면, 이제는 동시대의 감각과 첨단 기술, 새로운 서사 방식을 결합한 창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창작 뮤지컬은 주변부가 아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축적된 경험 위에 아직 못다 쓴 또 하나의 해피엔딩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본 글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코리아메모리' 등을 참고하였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경아

보수적인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레드북>.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이 네 번째 시즌을 맞아 2026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특유의 맑고 청량한 하이톤의 목소리로 국내 정상급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민경아 배우를 만나, 2023년 시즌에 이어 다시금 <레드북>의 '안나' 역을 맡은 소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 사진. 굿맨스토리



PROFILE.

주요 출연작

<베어 더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 <웃는 남자>, <지킬 앤 하이드>, <엑스칼리버>, <레베카>, <렌트>, <시카고>, <아이디> 등

수상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지킬 앤 하이드)

Q. 안녕하세요. 이번 경기아트센터 무대에서 뮤지컬 <레드북>으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을 맞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전 시즌 <레드북>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분들께서 보내 주신 응원이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Q. <레드북>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안나’라는 캐릭터를 소개해 주세요.

<레드북>의 안나는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 ‘숙녀’로 살아가기보다 ‘나 자신’으로 살기를 택한 인물이에요.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시대적인 편견을 떠나,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현실 속에서 안나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담아보려고 준비했어요. 누구나 모든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 생각이 무시되거나 틀렸다고 규정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안나를 준비했습니다.

Q. 제7회 에그린어워드 4개 부문, 제3회·제6회 한국뮤지컬 어워즈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레드북>. 이번 공연이 네 번째 시즌인데, 이전 시즌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레드북>은 매 시즌마다 늘 새롭고 풍부해지는 작품인데요, 이번 시즌은 특히 극장이 더 커지면서 세트와 영상 디자인의 변화가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어요. 무대 위에 펼쳐지는 시각적 이미지들이 훨씬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안나의 내면세계와 감정이 영상과 맞물려 더 깊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무대 위에서 더 입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시적인 여운과 상상력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레드북>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뮤지컬 넘버는 무엇인가요?

단연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죠. <레드북>의 가장 대표적인 넘버이기도 하고, 안나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넘버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 넘버가 <레드북>의 안나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Q. 배우 간의 호흡은 어떤가요?

배우 간 호흡은 너무 좋죠. 기존에 함께했던 배우들도 있으니, 시즌이 거듭될수록 호흡은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쌓이면서 무대 위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Q. 관객들이 <레드북>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편견과 차별을 딛고 성장하는 안나의 이야기가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나를 믿고 나로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관객분들도 덩달아 용기가 생기지 않으실까요?

Q. 최근 국내 뮤지컬 무대는 멀티 캐스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느끼는 부담과 긍정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부담이 없을 순 없죠. 하지만 다른 배우분들의 연기나 노래를 보면서 나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실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도 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표현하는 캐릭터를 더 깊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Q. <레드북>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작품이 전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작품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나가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해야 할 용기'와 '들을 수 있는 여유'를 필요로 하잖아요. <레드북>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작품이에요. 그 메시지가 관객 한 분 한 분에게도 닿아,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써 내려가는 삶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렌트>의 모린, <시카고>의 록시, <아이디>의 암네리스 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 오셨습니다. 민경아 배우님만의 캐릭터 접근법이나 준비 과정이 있다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가 어떤지, 캐릭터로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극 중 상황이 주는 환경과 인물 간의 감정들을 저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또 작품의 캐릭터로서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Q. 민경아 배우님을 떠올릴 때 <시카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록시 하트 역으로 200: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었고, 최재림 배우와 함께한 <We Both Reached For The Gun> 영상은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어요. <레드북>의 안나와 록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록시와 안나 모두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저는 어떤 캐릭터를 하든 몰입하고 집중해서 관객분들에게 극 중 메시지나 내용을 잘 전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캐릭터마다 다른 매력은 있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배우로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현재의 무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경험이 되어서 제가 해왔던 역,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너무 행복하거나, 그 순간순간이 주는 감정과 상황적인 경험은 비록 그 당시에는 그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경험으로 느끼고 배워가면서 작품과 캐릭터에 대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경기아트센터에서의 공연에 대한 기대와 경기도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보수적인 시대라도 개인의 자유와 진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남과 많이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내가 남들과 좀 다르더라도 나를 믿고 나서서 충분하다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Q. 2024년에는 tvN 드라마 <정년이>로 브라운관 데뷔를 하며 더욱 폭넓은 대중과 만나셨습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장르나 역할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무대와 매체 및 다른 장르까지 많은 매력이 있는 역할을 꾸준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직 하고 싶은 작품과 장르가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배우로서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25~26년 <레드북> 서울공연부터 지방투어, 피날레인 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까지 많은 사랑을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서 어떻게 일일이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하나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 <레드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GE

PREVIEW

- 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수놓는 그 황홀한 봄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 ②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뮤지컬 <메리골드>

REVIEW

- ① 탁월한 협연, 눈물의 피날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 ② 웃음 끝에 남은 가족의 얼굴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 ③ G-ARTS 원년 2025년, 경기도 곳곳 문화예술을 잇다
경기아트센터 2025년 돌아보기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수놓는 그 황홀한 봄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3월 햇살이 따사로울 무렵,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클래식 무대가 펼쳐진다.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185년 역사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온 진정한 모차르트 사운드를 경기아트센터에서 만나볼 기회다.

글. 편집실 | 사진. 프레스토컴퍼니

INMO YANG &
MOZARTEUM ORCHESTER SALZBURG

PREVIEW ㉔

파가니니와 시벨리우스를 넘어선 비르투오소,
양인모

1743년 제작된 전설의 악기 '카로두스(Carroodus)' 과르네리 델 제수(Guarneri del Gesù)와 함께 양인모의 연주가 시작된다. 양인모라는 이름은 이미 세계 클래식계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9년 만에 탄생한 우승자로 주목받았고, 2022년에는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다시 한번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두 콩쿠르 모두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로 손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당시 파가니니 콩쿠르 심사위원장이었던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는 그를 두고 "직관적인 음악가로, 그의 파가니니 연주는 매혹적이고 정교하다"고 극찬했다. 시벨리우스 콩쿠르 심사위원장 사카리 오라모 역시 "압도적인 우승이었으며, 현을 이동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어 노래하는 것과 같은 편안한 연주를 선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후 보스턴 글로브는 "매끄러운 기교와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양인모는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시적 감성이 깃든 매혹적인 사운드와 완벽한 테크닉의 조화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PROFILE.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22년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25/26 시즌 BBC 프롬스 데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리 자코)



185년 역사의 정통성,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이번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다. 1841년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체와 두 아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돔무지크페라인과 모차르테움(Dommusikverein und Mozarteum)'을 뿌리로 하는 이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다.

약 9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 작품 연주에서 특히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으며, 그 성취를 인정받아 2016년 빈 필하모닉 이후 최초로 골드 모차르트 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100년 넘게 참여하며, 모차르트 레퍼토리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역사를 쌓아왔다.

지휘봉을 잡는 로베르토 곤잘레스-몬하스(Roberto González-Monjas)는 현재 스위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스페인 갈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탁월한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다. 2024년 9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그는 에너지 넘치는 리더십으로 국제 무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으로 엮는

클래식의 정수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타모스, 이집트의 왕>으로 시작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서 양인모의 독주를 만나고,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C장조 <주피터>로 마무리되는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 협주곡의 왕'으로 불리는 명곡이다. 양인모의 시적이면서도 기교적인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베토벤이 추구한 송고한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인 <주피터>는 장엄하고 화려한 대위법이 결합한 '고전주의 교향곡의 정점'으로 꼽힌다. '모차르트의 영혼과 가장 가까운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주피터>는 이번 공연의 백미가 될 것이다.

He says...

양인모

Q.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양인모 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해석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이 곡은 마치 수심을 알 수 없는 연못 같습니다. 그래도 매번 조금 더 깊이 연못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끝에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스케일, 아르페지오 등 굉장히 단순한 재료만을 가지고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를 보여주는 베토벤의 능력이 항상 경이롭습니다.

Q. 2025/26 시즌 BBC 프롬스 데뷔는 세계 음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5,000석이 넘는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에서는 특별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대 바로 앞에 입석한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청중의 집중과 열기가 연주자에게 긴장보다는 오히려 편안함을 안겨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Q.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시면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에 대해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청중으로 공연장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연주자들을 알아보는 외국인들도 훨씬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한국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으며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Q. 경기아트센터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협주곡을 한국에서 처음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연주에 만족하지 않고, 늘 더 나은 음악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일시 3월 15일(일)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금액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뮤지컬 <메리골드>

2월 28일 토요일 2회에 걸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른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메리골드의 꽃말처럼, 이 작품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노래한다. 아픔으로 행복을, 삶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노래하는 역설의 뮤지컬. 그 무대의 한 편을 미리 살펴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PREVIEW ②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6년 02+03월
통권 178호
ISSN 2234-5949

발행일 2026년 2월 3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임선미
편집 담당 김규량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SPECIAL

- 04 VIEW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질 때까지
뮤지컬 <레드북> 감상 포인트
- 10 THEME
작은 가능성에서 브로드웨이의 찬사까지
60년 한국 창작 뮤지컬이 걸어온 길
- 14 INTERVIEW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경아

STAGE

- 18 PREVIEW
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수놓는 그 황홀한 봄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②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뮤지컬 <메리골드>
- 26 REVIEW
① 탁월한 협연, 눈물의 피날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② 웃음 끝에 남은 가족의 얼굴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③ G-ARTS 원년 2025년, 경기도 곳곳 문화예술을 잇다
경기아트센터 2025년 돌아보기

INSIGHT

- 38 ART AND THE CITY
멜버른을 중심으로 훑는 호주의 공연예술: 도시가 무대를 짓는 방식
- 44 ATTRACTION
서울과 세계 사이에서: 공연예술을 통해 발견한 경기도
- 50 ART TALK
경기 자연 속 그림 같은 문화예술의 마을
'별난독서문화마을' 관해경 대표와의 인터뷰
- 54 ON & OFF
공연장 밖 예술, 일상 속으로 스며든 무대
- 56 ESG & ART SCENE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함대'의 시작

GGAC STORY

- 60 ZOOM IN
관객 기다리는 공연장으로 고양이 걸어가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낭이 직원들의 출근기
- 64 GGAC NEWS
- 66 CALENDAR
- 68 EPILOGUE

다섯 이야기로 풀어내는 삶의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관객에게 과한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옴니버스 형식의 다섯 개 에피소드를 통해 각 인물의 사연을 섬세하게 풀어내면서도, 세련된 음악과 화이트 넘치는 대사로 웃음과 감동의 균형을 유지한다.

펜션 운영자의 통제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변화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로를 알아가고, 위로하고, 의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관객들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과연 이들은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작품의 질문은 결국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치유와 힐링의 비법을 담은 메시지

학교폭력, 외로움,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뮤지컬 〈메리골드〉가 다루는 소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함께 세대 간 불통과 갈등이 심화하는 시대, 이 작품은 자녀와 부모, 청년과 노인의 다양한 사연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025년에도 서울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 서구 교육청 등에서 생명존중 뮤지컬로 초청되어 청소년부터 부모 세대까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무거운 주제를 춤과 노래, 연기로 풀어내 학생들의 높은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겨울의 끝자락을 따뜻이 감싸안은 희망의 무대

이번 경기아트센터 공연은 2월 28일(토)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 진행된다. 선창용, 박웅서, 이영록, 이재은, 강한별, 신혜선, 한유채 등 실력 있는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긴 연습 과정과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무대 준비를 거쳐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경혜 연출은 “이 작품은 죽고 싶다는 말이 금기가 아닌, 고통을 알리는 언어로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며 “공연을 보는 누구라도 무대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메리골드는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시간 피어나는 꽃이다. 한번 피면 쉽게 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꽃을 피워낸다. 뮤지컬 〈메리

골드〉도 그렇게 10년 넘게 무대 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 긴긴 겨울이 끝나가는 이때, 경기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공연은 삶이 힘든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을 노래해 주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이다.

뮤지컬 〈메리골드〉

일시 2월 28일(토) 14:00 / 18:00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200

탁월한 협연, 눈물의 피날레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26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그리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성장해 온 김선욱.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공연 무대에서 그는 또 한 번 조성진과 함께했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창>, 그 사이에 놓인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조성진의 눈부신 협연과 김선욱의 눈물로 장식된 이 피날레는, 잊지 못할 이별의 순간을 선사한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먼 훗날 다시 있을 재회의 순간을 꿈꾸게 해 주었다.

글.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MASTERS SERIES VI

PATHÉTIQUE



REVIEW ①

2006년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대회인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김선욱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2021년, 33세의 김선욱은 KBS교향악단 포디움에 서며 지휘자로 데뷔했다. 2022년 12월, 오스모 벤스케 당시 서울시향 음악감독이 부상으로 못 오자 김선욱에게 SOS를 보낸다. 공항으로 가다가 차를 돌린 김선욱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2023년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 공연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향의 지휘봉을 잡은 김선욱은 파죽지세였다. 2024년 1월에는 경기필 예술감독 임기를 시작하며 지휘 경력에 날개를 달았다. 김선욱의 이름 석 자가 브랜딩하는 경기필의 면모는 주목할 만했다. '김선욱의 오케스트라'가 된 경기필은 차원 높은 가치를 획득했다. 2024년 10월, 김선욱이 지휘하고 빈 필 악장 라이너 호넥이 협연과 악장을 담당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과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에서는 독일 피아노 레퍼토리에 쌓아온 김선욱의 내공이 독일 관현악 레퍼토리로 이행되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었다.

김선욱이 이끈 경기필의 연주곡 중에는 도전적인 작품이 많다. 특히 피아노 협주곡을 함께 연주하는 경우는 만족도가 더 높았다. 단원들이 늘 김선욱 지휘자를 따르고 좋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오스트리아 낭만주의, 후기낭만주의 레퍼토리에 대한 의욕도 돋보였다.

김선욱 본인과 더불어 경기필의 협연자 가운데 최고의 화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었다. 예술감독 취임 첫해 김선욱의 러브콜에 응한 조성진은 2024년 6월 '계촌클래식축제'에서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을 협연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둘이 함께 앉아 네 손으로 들려준 앙코르 <헝가리 무곡>도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2025년 12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경기필 예술감독으로서 마지막 정기공연에서 김선욱은 다시 한번 조성진과 함께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차이콥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교향곡 6번 <비창> 사이에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조성진이 협연하는, 잊지 못할 피날레였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 조성진의 눈부신 협연

지휘자 김선욱의 등장은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듬직했다. 메인 레퍼토리 <비창>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첫 곡인 차이콥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클라리넷과 바순의 연주로 엄숙하게 시작됐다. 삶과 죽음, 로맨스와 갈등, 행복과 불행의 간발의 차 갈림길... 어찌 보면 차이콥스키의 예술세계를 짧은 시간에 능숙한 듯한 이 작품의 도입부는 아름다운 꿈결 같은 한편 어둡고



불길함도 깔려 있었다. 이후 신열에 들뜬 듯한 부분은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의 배경처럼 사이키델릭하게 지나갔다. 캐플릿가와 몬테규가의 결투 장면에서 타악기와 관현악의 총주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잉글리시호른의 연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주제 선율은 어찌할 수 없게 듣는 이를 뒤흔들고, 운명과 사랑의 행로로 이끌며 순응하게 만들었다. 김선욱의 해석은 극단적이거나 탐미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 중용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차이콥스키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를 따라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지됐다.

일부 연주자들이 퇴장과 등장을 하고 무대 위에 피아노가 설치됐다. 조성진과 김선욱이 환호 속에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만 31세 청년 조성진의 슬림하고 날렵한 외모는 곧 펼쳐질 그의 연주를 암시하는 듯했다. 오케스트라의 짧은 문장에 구두점을 피아노가 찍는 듯한 도입부에서부터 가볍고 날렵하지만 강렬하고 웅골찬 조성진 연주의 실마리가 보였다.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광시곡에서 조성진은 나비처럼 날아벌처럼 쏘았다. 그는 흔들림 없는 피아니스트였다. 일관적인 흐름을 견지하면서도 각 변주에 독특한 표정을 부여했다. 연주는 답답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명료했다. 맑게 닦은 수정 같은 음색은 내내 영롱하게 빛났다. 지적이고 절제된 연주였다. 내공 있는 기교의 드라이브 안에서 운영되는 질서를 보여줬다.

㉞

**지휘를 마친 김선욱은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흘렸다.
첫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경기필 포디움에서 맞이한 뒤
2년 동안 다사다난한 성장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으리라.
앞으로 더 노련해지고 잔뼈가 굵어질 김선욱과
경기필의 재회를 상상하며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객석을 나섰다.**

㉟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알리는 제2변주부터 금가루를 뿌리듯 기교가 눈부셨다. 제3변주는 여유가 느껴졌고 제4변주의 짜임새 튼튼한 기교는 믿음직했다. 제5변주의 통통 튀는 리드미컬함도 일품이었다. 제6변주는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루며 쉬어가는 느낌이었고 제7변주는 '진노의 날'(Dies Irae) 주제가 장송곡처럼 부각됐다. 제8변주와 제9변주의 강렬하게 육박하는 타건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좀 더 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제10변주의 빼어난 해석은 감탄이 나왔다. 제11변주에서 관현악의 소강상태 속에 건반이 반짝였고, 제12변주에서는 목관과 호른 연주가 더 깊어야 했다. 제13변주와 제14변주에서는 당당한 관현악과 신비로운 피아노가 교차했다. 제15변주에서는 조성진의 초절기교가 돋보였고, 제16변주와 제17변주에서는 미스터리함이 짙어졌다. 햇빛이 피아노를 조명하듯 분위기가 바뀌더니 유명한 제18변주가 흘렀다. 오케스트라도 깨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조성진은 쇼팽으로 다져진 낭만성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제19변주의 섬세한 터치에 이어 제20변주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고 제21변주는 리듬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제22변주는 육박해 오는 오케스트라에 맞서는 넉넉한 건반의 역량이 잘 느껴졌다. 눈부신 카덴차에 이어 제23변주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주가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제24변주는 정연하면서도 화려한 연주에 이어 '진노의 날' 주제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심플하게 끝을 맺었다.

조성진의 앙코르는 쇼팽 (왈츠 10번 b단조)와 (왈츠 14번 e단조) 2곡이었다. 맑은 유리구슬 같은 건반은 프랑스의 에스프리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다.

이별의 아픔에 공감한 김선욱의 (비창) 4악장

2부의 메인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의 최후 작품이자 최고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교향곡 6번 (비창)이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러시아를 넘어 어떤 독일음악보다도 보편성을 지닌다. 그의 음악 속에는 고전적인 유럽의 성이 있다. 거기엔 왕자와 공주가 살고 이따금 해자를 넘어 갑옷 입은 기사가 들어오기도 한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의 이야기. 그래서 러시아 음악계에서 차이콥스키는 별종이었다. 그는 고전적인 전 유럽을 포괄한 음악을 썼다.

경기필을 지휘한 김선욱의 (비창) 해석은 이렇게 여실히 느껴지는 보편성을 향했다. 러시아적인 깊고 강렬함, 프랑스적인 탐미적 미학, 독일적인 견고함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어쩌면 한국적인 (비창)이었다. 현악군의 분전을 통해 곡의 큼직한 외형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반 이후 듣는 이의 가슴을 저



릿하게 하는 강렬한 절망의 포효는 의외로 담담했다. 쏘는 듯한 금관과 목관의 효율적 운용으로 가능한,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가속의 충격은 생각보다 덜했다. 2악장에서 차이콥스키가 우아함 속에 숨겨놓은 불안함은 잘 보이지 않았다. 3악장에서 질주하는 행진에서는 약간의 권태로움이 엿보였는데, 죽어가며 심장 박동이 멈추는 4악장의 색채는 이와 확연히 대조적이었다. 예술감독 김선욱의 최후 정기공연이란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나 한다. 꺼져가는 세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듯한 애처로움이 땀에 젖은 김선욱의 뒷모습에 배어 있었다.

지휘를 마친 김선욱은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흘렸다. 첫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경기필 포디움에서 맞이한 뒤 2년 동안 다사다난한 성장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으리라. 앞으로 더 노련해지고 잔뼈가 굵어질 김선욱과 경기필의 재회를 상상하며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객석을 나섰다.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과 음악 칼럼니스트로, 클래식 음악의 무대와 객석을 이어주는 글을 쓰고 있다. 음악전문지 『객석』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고, KBS 클래식FM (출발 FM과 함께)의 (류태형의 출발 퀴즈)와 (FM 음반가이드)를 진행한 바 있다.



웃음 끝에 남은 가족의 얼굴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Show'라는 맛깔난 양념을 친 기발한 설정, '이복형제의 화해'라는 감동적인 서사, 그리고 관객 참여형 연출이 어우러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공연으로 완성됐다.

글. 이대현(작가·연출가)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02



기발한 유언이 만든 코미디 드라마

지난 2025년 12월 12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오픈한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은 유쾌하고 몽클한 공연이었다. 극작, 연출, 연기, 음악, 무대, 의상은 기발하고 진솔했다. 조명과 음향은 모든 예술적 표현을 관객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배우들에게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몸과 형광봉을 신나게 흔들며 웃었다. 그들은 때때로 손등으로 축축해진 눈시울을 닦았다.

작가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희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빚어냈다. 유명을 달리하게 된 왕년의 코미디언이자 트로트 스타인 심해룡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은 각각 슬하에 아들과 딸들을 두었다. 이복형제인 이들의 관계는 서로 불편하고 어색하다. 이에, 심해룡은 자녀들에게 기발한 유언을 남긴다. 자신의 유산을 사 등분 해서 4명의 자식에게 고르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건을 단다. 그 조건은 자신의 모습을 본뜬 밀랍인형을 장례식장에 세우고, 4명의 자식이 자신의 불후의 히트곡인 <명랑가족>을 장례식 마지막 날 안무와 함께 불러야 하며, 문상객 중 2명 이상이 일어나서 춤출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야 하고, 자신과 활동했던 '심해룡과 아이들'의 멤버들이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강력한 목표와 장애물이 설정된 힘 있고 간결하며 희극적인 이야기를 구축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첫 번째 부인이 문상을 와서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는 가족들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관객을 참여자로 만든 연출의 힘

연출이 무척 재밌다. 우선, 형광봉을 관객에게 나눠주고 공연 내 내 신나게 흔들며 배우들과 함께 놀며 소통하자는 연출 방식은 관객을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관객에게도 공연을 재밌게 만들 책임이 생겼다.

또한,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에 나이트클럽과 쇼를 접목한 것은 대조와 역설의 재미를 흠뻑 자아냈다. 무채색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곳에서 반짝이는 쇼 의상을 입고, 애도 대신 신나는 가사와 춤을 동반한 트로트를 불러야 한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서로가 남남이 되기 일보 직전인 4명의 이복형제는 마음 깊이 담아둔 애증과 긴 세월 동안 묵혀온 갈등이 폭발하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모여서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호흡을 맞추느라 노력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삶의 기쁨으로, 상실의 슬픔은 회복의 웃음으로, 굼앳던 상처는 치유의 감동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애정 관계가 형성되어가면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유언에서 요구하는 차원의 공연을 이룩하게 되는 기적에 도달하게 된다.

연출가는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타당성을 부여했고, 배우들이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연출가의 세련된 미적 감각은 부담 없고 편안한 관극의 경험을 제공했다. 배우들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편안히 흐르게 했다. 그래서 관객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캐릭터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보았다. 웃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끈해졌고, 슬픈 장면을 지나며 조만간 명랑해질 다음 장면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모든 세대를 아우른 따뜻한 공연

“배우들이 작품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명랑가족〉으로 관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하고 싶어 하는 배우의 진심이 느껴졌다. 주인공들과 앙상블 배우들 모두가 같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인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예술적 합을 향해 나아가는 집단적 연기가 드러내는 생명력과 감동이다. 또한 배우들은 각각의 캐릭터마다 정교하게 개성 넘치게 구축했으며 탄탄한 기본기는 감탄을 자아냈다. 뮤지컬이라는 측면에서,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에서의 배우의 노래와 춤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했다. 열심히 흔드는 야광봉은 관객이 배우들의 노래와 춤에 대하여 호감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시다. 이른바 ‘탁월한 기량을 뽐내는 노래와 춤의 묘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는 달리, 〈명랑가족〉 배우들의 노래와 춤은 흥을 불러일으켰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뮤지컬에서 진정한 노래와 춤의 역할이다. 노래하기 좋아하고 춤추기를 즐겨워하는 배우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뮤지컬! 이런 뮤지컬에 관객의 마음은 적셔지고 공연은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또한, 이 공연은 훌륭한 디자이너와 스태프의 힘을 체험하게 했다. 맛있는 음악과 비주얼은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편안한 관객의 경험으로 유도했다. “조금 험령하게 구김도 약간!”이라는 예전의 유명했던 어느 의류 광고 문구가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일류 작곡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에 임했으리라 짐작하며 그들의 깊은 내공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참, 공연의 맛을 잘 살렸다. 음악은 가볍고 산뜻한 트로트로서 삶의 드라마틱한 상황과 감정들을 직관적으로 담아내어 즉각적인 공감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볼 때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공연에서는 음악이 가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

래서 관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여흥도 함께.

무대미술은 장례식장을 나이트클럽에 차리면서 기묘한 공간을 디자인했다. 참 놀기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며 빙그레 웃게 만든다. 배우들의 의상 또한 장례식장을 누비는 흑백 톤의 사람들이 아닌 알록달록 반짝이는 의상으로서 Show적 재미를 극대화하고 캐릭터들에게 활력을 부여했다.

관객들이 로비에서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이 얼마나 재밌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신났었는지 등등에 관해 즐겁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어르신들, 어린이들, 청춘남녀들 모두가 공연 칭찬을 많이 했다. “내 평생 봤던 뮤지컬 중에 이게 최고였다!” “아빠! 너무 재밌다! 우리 치킨 먹고 가자!” 관객들이 극장이 곳곳에서 함께 온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솔직하게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어서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싶었다. 이 말은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춥고 허기질 때 따뜻한 국밥이 마음을 채우며 행복감을 주는 거 같은 그런 공연. 자신들의 삶을 존중하는, 겸손하고 세심한 공연. 외롭고 불안한 자신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안아 주는 포근한 공연. 바로 트로트 뮤지컬 〈명랑가족〉 같은 공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야광봉을 흔들고, 웃고, 기꺼이 일어나서 열심히 춤추던 관객을 보며, 경기아트센터에도 박수갈채를 보낸다. 관객을 정성과 친절로 모시는 모습도 흐뭇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하는 따뜻한 기획에 마음이 훈훈해진다. 이 훈훈한 기운이 전국에 퍼지고 세계를 향해서도 나아가길 바란다.

이대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교수이자, 약속의연극레퍼토리 상임 작가 및 연출가이다. 〈수탉〉(2019), 〈피에타〉(2017), 〈미스 줄리〉(2010) 등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작업을 해 오고 있다.



G-ARTS 원년 2025년, 경기도 곳곳 문화예술을 잇다

경기아트센터 2025년 돌아보기

2025년 경기아트센터는 'G-ARTS'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경기도 전역의 문화예술을 잇고, 확장했다.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예술의 가치를 확장한다'라는 비전 아래, 공공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연 경기아트센터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③



경기도 어디든, 문화소의 없이

연천에서 평택까지, 김포에서 양평까지. 경기아트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전역을 종횡무진했다. '문화소의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도민의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시설과 도서관, 전통시장과 공원, 공동주택까지,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총 930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고, 14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했다.

경기도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적극 나서

경기아트센터 산하 경기도예술단은 찾아가는 공연에 적극 나섰다. <예술즐거찾기>를 통해 우수한 공연을 도내 곳곳에서 선보이며 8,000여 명의 관객을 만났다. 파주 민통선 평화촌, 가평 음악역1939, 남양주 경기도실학박물관 등에서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연극, 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파주 평화촌에서 경기도무용단 공연을 관람한 90대 주민은 "생전 처음 한국무용을 봤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소감을 전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경기국악원, 세대와 국경 넘어 관객층 넓혀

경기아트센터가 운영하는 국악 전문 공연장 경기국악원에는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가진 특별한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2025년 새롭게 선보인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Feel Korea:국악을 느끼다>에는 루마니아,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총 350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해 K-컬처의 위상을 드높였다. 국악 실내악과 전통연희 공연은 물론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까지 연계한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 97%, 재참여 의사 95.2%라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생후 5개월 아기부터 관람 가능한 <우리 아기 첫 극장 - 엄마랑 아기랑> 시리즈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오브제 놀이와 몸짓 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며 주목받았다. 아기들이 무대 위를 자유롭게 거다니며 만들어 낸 새로운 공연 풍경은, 문화예술이 생애 첫 순간부터 함께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문화예술로 사회적 메시지 전하

경기아트센터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후위기 대응, 역사 인식 등 동시대 사회적 의제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며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했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와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제1회 경기 배리어프리 페스티벌)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며, 접근 가능한 공연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it's Live - 경기 기후콘서트>에는 4만 5천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환경 보호와 기후행동 실천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흥 거북섬에서 열린 <K-콘텐츠 페스티벌>에서는 경기도 예술단과 K팝 아티스트, 미디어아트, 드론 쇼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만여 명의 경기도민과 역사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예술인의 성장 도와

예술인 지원 사업도 청소년부터 중견 예술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체계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교육청·단국대학교와 협력한 (경기예술성장공유학교)를 통해 15명의 청소년 음악 영재가 전문 연주자와 교수진의 지도를 받았다.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사업에서는 음악, 무용, 연극 등 6개 장르에서 200여 명의 청년예술인을 선발해 창작부터 공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연말 무대에 오른 발레 <호두까기인형>과 연극 <우리 읍내>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중견 예술인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원로 연출가를 발굴해 7개 작품을 선정하고 6개 공연장에서 9차례 상연하며 경기도 연극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한층 강화했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2025년은 G-ARTS 브랜드를 선포하고, 문화예술이 도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간 해였다”며, “2026년에는 G-ARTS 브랜드를 기반으로 우수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해 공연예술 유통 구조의 안정화와 확장, 경기도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6년, 경기아트센터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MUSICAL 레드북

Redbook

2026.02.06 ~ 2026.02.08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

주최 (주)타입커뮤니케이션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주관 쇼메이트엔터테인먼트

제작 (주)아메오드



INSIGHT

ART AND THE CITY

멜버른을 중심으로 훑는 호주의 공연예술: 도시가 무대를 짓는 방식

ATTRACTION

서울과 세계 사이에서: 공연예술을 통해 발견한 경기도

ART TALK

경기 자연 속 그림 같은 문화예술의 마을
'별난독서문화마을' 곽혜경 대표와의 인터뷰

ON & OFF

공연장 밖 예술, 일상 속으로 스며든 무대

ESG & ART SCENE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환대'의 시작



멜버른을 중심으로 훑는 호주의 공연예술: 도시가 무대를 짓는 방식

서울의 거울은 몸을 작게 만든다. 손이 먼저 굳고, 숨이 얇아진다. 그럴 때 남반구를 떠올리면 늘 약간의 어긋남이 생긴다. 계절이 반대라는 사실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는다. 호주 공연예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긋남'은 곧 작업 방식, 관객의 습관, 도시의 리듬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호주 공연예술의 현장을 살피다 보면, 작품의 라인업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작품이 태어나는 조건' 그 자체다. 어떤 작품을 올리느냐가 아니라, 예술가에게 '실패할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고, 관객이 도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공연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요한 설계가 그것이다. 멜버른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들을 훑어보며 호주의 공연예술 철학을 엿본다.

글. 이희진(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지명을 두 겹으로 부르는 이유: 멋이 아니라 태도

최근 호주 현장에서는 지명 표기가 두 겹으로 적히는 장면을 흔히 만난다. 멜버른(Naarm/Melbourne), 애들레이드(Tarantanya/Adelaide), 퍼스(Boorloo/Perth), 그리고 강 이름을 아라강(Birrarung/Yarra River)이라고 부르는 방식까지.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방송이 앞장서 일상의 언어로 편입시킨 이 움직임은, 땅의 원래 주인인 원주민의 역사를 지우지 않겠다는 공적 선언이자 공연예술이 발을 딛고 있는 토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예컨대 Birrarung은 빅토리아 주 정부 안내에서도 '아라강의 조상(ancestral) 이름'으로



MELBOURNE

37° 48' 49" N 144° 57' 47" E



포트 필립 만(Port Phillip Bay) 너머로 보이는 멜버른의 스카이라인. 사진 출처: unsplash.

소개된다. 퍼스의 전통 지명 Boorloo 역시 City of Perth가 공식 콘텐츠에서 사용한다. 애들레이드의 Tarntanya는 카우르나 지역과 연결된 장소명으로 시 차원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런 표기는 공연예술계의 글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도, 도시를 부르는 방식 자체가 “이 땅의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호주 공연예술계가 최근 몇 년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화두인 ‘기억, 땅, 공동체, 진실 말하기’와도 맞닿아 있다.

호주의 주요 도시 휴가:

썬의 ‘성격’은 달력과 지리에서 먼저 드러난다

호주 공연예술을 한 장의 지도처럼 펼치면, 도시마다 역할이 다르다. 시드니(Warrane/Sydney)는 국가대표급 기관의 중력과 국제 유통의 창구가 강하고, 애들레이드는 특정 시즌에 도시 전체가 축제로 변하며 관객의 ‘머무름’을 설계한다. 퍼스는 인도양

을 향한 관문 도시답게, 네트워크의 축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이 선명하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브리즈번, 캔버라, 호바트 같은 도시들이 각자의 밀도로 생태계를 받친다.

먼저 시드니는 상징성과 규모가 큰 도시지만, 썬은 한두 기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보여주는 거점이 캐리지웍스(Carriageworks)다. 2007년 옛 철도 공방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공연·전시·레지던시를 굴리며 ‘대표 도시’의 중심부 밖에서 창작 엔진 역할을 한다. 매년 1월의 시드니 페스티벌(Sydney Festival)은 공연을 극장 밖의 도시 동선까지 확장하며, 시드니가 “계절의 기분을 도시 전체로 번역”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애들레이드는 ‘매드 마치(Mad March)’라는 달력으로 도시를 운영한다. 이 시기 애들레이드 축제들-Adelaide fringe(2월 중순~3월 중순, 매해 변동), Adelaide Festival(2월 말~3월 초, 매해 변동)-은 공연을 극장 안에만 두지 않고, 공원과 거리로 끌어내 도시의 생활 리듬을 바꿔 놓는다.

애들레이드 프린지(Adelaide Fringe)는 공원에 텐트 공연장과 푸드트럭, 야외 바를 촘촘히 세워 사람들이 하루 중 아무 때



애들레이드 프린지 Adelaide Fringe. 사진 출처: 애들레이드 프린지 인스타그램.



애들레이드 프린지 Adelaide Fringe. 사진 출처: 애들레이드 프린지 인스타그램.



애들레이드 프린지 Adelaide Fringe의 주요 장소 중 하나인 글러토니. 사진 출처: Gluttony 공식사이트

나 들렀다 쉬고, 다시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 '거점'을 만든다. 같은 시기에 애들레이드 페스티벌(Adelaide Festival)은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작품들을 배치해, 소란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관객이 시간을 떼어 '집중해서 보는 밤'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워매들레이드(WOMAdelaide)가 더해지면, 공원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리듬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풍경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 도시는 결국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머무느냐'를 먼저 묻게 만든다. 공연 사이의 이동과 휴식, 짧은 대화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퍼스(Perth)에서 열리는 APAM(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은 호주와 뉴질랜드 공연예술을 소개하고, 공연장·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초청과 협업을 논의하는 국제 마켓이다. 이 행사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퍼스에서 열린다는 건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호주 공연계가 세계를 만나는 '약속 장소'가 동부 해안 밖으로 옮겨간다는 신호다.

멜버른(Naarm):

작품보다 '만드는 환경'이 먼저 보이는 도시

이제 멜버른으로 들어가 보자. 호주의 공연예술을 이해할 때 "무슨 작품이 유명한가"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다. 공연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다. 멜버른은 '공연이 많이 열리는 도시'라기보다,

새 작업을 시험하고 다듬고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다. 연습할 공간이 있고, 첫 시도(소입)를 해볼 무대가 있고, 관객이 그 과정을 따라볼는 방식이 축제와 기관의 리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는 규모가 다른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돌아간다. 실험을 지지하는 공간이 있고(Arts House, The Substation), 동시대 연극을 꾸준히 생산하는 제작기관이 있으며(Malthouse), 도시의 대표 기관은 더 많은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Arts Centre Melbourne). 겨울에는 라이징 페스티벌이 어두운 밤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바꿔, '공연을 보러 가는 길'까지 경험의 일부로 만든다.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트리엔날레 Asia TOPA처럼 아시아-태평양 협업을 '초청'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밀어 붙이는 플랫폼이 이 도시에 있다는 것도 멜버른을 특별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멜버른은 새 건물을 내세우기보다, 낡은 공간을 쓰는 감각이 좋다. 변전소, 시청 건물, 오래된 산업 시설 같은 뼈대가 공연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와 형식을 바꿔놓는 조건이 된다. 어떤 낡은 빛과 소리가 건물 안에서 길게 울려, "오늘의 무대는 배우만이 아니라 공간이기도 하다"는 감각을 관객에게 남긴다. 멜버른을 보면 작품 목록보다 먼저, 도시가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눈에 들어온다.



Arts Centre Melbourne 스파이어, 사진 출처: 셔터스톡.

아트 하우스(The Arts House):

공공이 예술가의 '대관자'가 아니라 '동료'가 될 때

멜버른의 독립·실험 씬을 말할 때 아트 하우스는 자주 '제일 먼저' 등장한다. 하지만 이곳을 단지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라고 부르면 반만 본 셈이다. 핵심은 개발과 제작을 도시의 공공 시스템 안에 넣어두는 방식이다. 컬처 랩(Culture LAB)은 실험적 실천을 하는 예술가·소규모/중규모 단체의 새 작업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 완성작만 '작품'으로 인정하는 생태계에서는, 예술가는 늘 마지막 순간에만 평가받는다. 반면 개발 단계가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곳에서는, 실패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취급된다. 멜버른이 독립 예술가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단지 무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실패할 시간이 규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서브스테이션(The Substation):

'형식 너머'를 증폭시키는 실험의 물리적 조건

기차를 타고 뉴포트로 가면 더 서브스테이션이 나온다. 1915년 철도 전력 공급 시설로 지어진 산업 유산을 복원해 만든 이 공간은 스스로를 '형식을 초월하는 작품을 증폭시키는' 멀티아트·실험 실천의 리더로 소개한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건 건물의

조건 때문이다. 큰 스케일의 홀, 벽돌과 철의 물성, 빛과 소리의 잔향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면서, 이곳은 '작품을 담는 그릇' 이라기보다 예술가에게 조건을 다시 짜 보라고 요구하는 공동 창작자처럼 작동한다. 방향성은 한 문장에 요약된다. "문제적 역사를 다시 읽고,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그리고 이 실험이 관객 배제로 굳지 않도록, 접근(Access)과 관객 경험을 운영 차원에서 계속 개선하겠다는 윤리를 함께 전면에 둔다.

몰트하우스 시어터(Malthouse Theatre):

'발효의 건축'이 동시대 연극의 실험실로 바뀔 때

멜버른의 적응형 재사용을 도심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곳이 몰트하우스 시어터다. 멜버른 공식 이벤트 사이트 '왓츠 온 멜버른(What's On Melbourne)'은 이곳을 '개조된 옛 양조장'에 자리한 공연예술 공간으로 소개하며, 창의적인 연극 경험을 큐레이션한다고 설명한다. 1882년 캐슬메인 양조장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는 기록도 널리 인용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쁜 유산 건축'이 아니라, 그 유산이 어떤 연극을 부르는가다. 몰트하우스 시어터는 고전을 새로 읽거나 동시대의 정치·사회적 질문을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다룬다. 즉 이곳의 정체성은 '대극장'의 권위가 아니라, 동시대성을 끝까지 불



호주 공연예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좋은 작품을 어디서 볼 수 있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걷고, 머물며,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되는가.

공연은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의 밤과 공원, 이동하는 길까지 번져 나간다.

결국 예술은 ‘콘텐츠’라기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호주가 보여주는 건 그 가능성이다.



잡는 제작 태도에 있다. 관객이 느끼는 친밀함 역시 좌석 거리보다, 작품이 회피하지 않는 질문이 관객의 현재를 직접 겨냥하기 때문에 생긴다.

멜버른 아트센터(Arts Centre Melbourne):

성채에서 광장으로—기관이 스스로를 다시 설계할 때 멜버른의 스카이라인을 붙잡는 것은 멜버른 아트센터의 스파이 어(침탑)다(1996년 완공, 162m).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상징물보다,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Reimagining(재해석, 새로운 상상)의 방향이다. 이 프로젝트는 Theatres Building(극장 공간)을 더 열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동선·접근성·공공성을 다시 설계하려는 대규모 전환이다. 2018년 호주의 선도적 건축사무소 NH아키텍처와 오슬로에서 출발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스노헤타(Snøhetta)가 설계팀으로 선정됐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2026년 10월 재개관 예정). 결국 Reimagining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이곳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 독립 공간들이 먼저 만들어진 포용의 운영 문법을, 가장 큰 기관이 건축과 시스템 차원에서 재학습하는 장면이다.

라이징(RISING) 페스티벌:

겨울을 피하지 않고 ‘점유’하는 축제

멜버른의 겨울은 길고 어둡다. RISING(2026년 5월 27일~6월 8일)은 그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도시의 밤을 공연예술의 매질로 삼아 사람들이 극장으로 ‘들어가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이 축제의 매력은 라인업보다, 도시를 걷는 동선이 곧 경험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데 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의 볼룸을 ‘전시 이자 놀이’로 바꾼 <Swingers: The Art of Mini Golf>는 관객

을 관람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만들고, 멜버른 캐피톨 극장(The Capitol)은 <intangible #form> 같은 레이저 작업으로 공연장을 ‘빛의 설치’로 바꿔 놓는다. 심지어 움쓰양의 <명때리기 대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규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들어오면서, 관객은 티켓을 산 사람을 넘어 그 시간의 도시를 걷는 사람으로 확장된다. 멜버른이 겨울을 ‘행사’가 아니라 ‘점유’로 바꾸는 방식이다.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트리엔날레(Asia TOPA):

아시아-태평양을 ‘방향’이 아니라 ‘구조’로

멜버른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플랫폼은 공연예술 트리엔날레 Asia TOPA다. 5년 만에 돌아온 2025년 시즌(2025년 2월 20일~3월 10일)은 도시 전역 20개 공간에서 펼쳐졌고, 17개국 410명의 아티스트·컬렉티브가 참여해 62개 프로젝트, 1,000회 이상의 공연·이벤트로 도시의 시간을 촘촘히 채웠다.

하지만 핵심은 ‘많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가다. 2025년 프로그램은 18개 월드 프리미어와 18개 신작 커미션을 전면에 두며, 초청이 아니라 공동 제작을 축제의 문법으로 삼았다. 멜버른 아트센터는 Asia TOPA 2025의 참여 규모를 416,000명(티켓·파트너 전시·무료 공공 프로그램 포함)으로 정리하며, 공연예술이 극장 밖 공공장소와 동선까지 무대로 확장되는 방식이 성과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Asia TOPA에서 아시아-태평양은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멜버른이 스스로를 재정하는 협업과 공공성의 구조가 된다. 한국 공연예술에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호주가 원하는 교류는 “한 번의 투어”가 아니라, 함께 만들면서 제작 조건(리서치 시간, 책임 분담, 크레딧·권리)을 먼저 맞추는 과정이며, 그 구조가 정리될수록 협업은 오래 간다.

호주 공연예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좋은 작품을 어디서 볼 수 있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걷고, 머물며,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되는가. 공연은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의 밤과 공원, 이동하는 길까지 번져 나간다. 결국 예술은 ‘콘텐츠’라기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호주가 보여주는 건 그 가능성이다.

이희진

프로듀서그룹 도트(Producer Group DOT)의 공동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을 잇는 공동제작 및 유통 전략을 설계해 왔다. PAMS(서울아트마켓) 연극부문 커넥터, IETM(국제공연예술네트워크) 자문 멤버로 활동하며 국제 교류 현장의 생생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과 세계 사이에서: 공연예술을 통해 발견한 경기도

축구와 자전거를 사랑하는 영국인인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 밖의 공연예술 세계였다. FC서울 원정 경기를 쫓아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중 우연히 시작된 공연 관람이 어느새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까지, 경기도가 서울과는 또 다른 생동감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가왔다. 명성보다 지속성을, 화려함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기도 공연문화의 진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

글. 폴 카버(방송인, 프리랜서 번역가)

여러분께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흔히 학생들을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파'와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극을 하는 '괴짜'로 나누었다면, 나는 늘 운동파 쪽에 가까웠다. 지금도 틈만 나면 축구를 응원하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나의 주요 취미다. 다만 이 두 가지 취미는, 의도하지 않게 나를 예술과 연결해 주었다.

행복한 관계의 비결 중 하나가 타협이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FC서울 원정경기를 보기 위해 친구를 그 먼 길까지 자주 끌고 다닌 대가로, 나는 친구가 보자고 하는 각종 공연을 한 번씩 함께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 덕분에 발레 (백조의 호수)를 여러 번 보게 되었고, 뮤지컬과 연극, 콘서트도 한국 곳곳에서 접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도시들은 대부분 경기도를 포함해 K리그 프로 축구 구단이 있는 곳들이었는데, 경기도가 그 중심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내가 가진 경기도에 대한 인상은 다소 단순했다. 동료들이 긴 통근 시간을 감수하며 출퇴근하는, 이른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베드타운’들의 집합체라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도시와 지역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곳들은 모두 나름의 생활 문화와 지역 축제, 그리고 활발한 예술 현장을 가진 완결된 공동체였다.

하지만 내가 경기도를 이해하게 된 경로는 안내서나 공연 리뷰, 혹은 경기도 관광공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니었다. 나는 훨씬 느린 방식으로 이 지역을 알게 되었다. 바로 자전거를 타면서였다.

동네 골목과 강변, 큰 도로와 위성도시, 조용한 주거 지역을 자전거로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이나 교차로에 걸린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다. 콘서트, 연극, 무용, 어린이 공연, 지역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들이었다. 서울 밖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기 쉬운 공간에서, 오히려 놀랄 만큼 야심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렇게 현수막들은 하나의 초대장이 되었고, 나는 공연장을 향해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나에게 독자적이며 계속 진화하는 공연예술의 풍경으로 다가왔다.

첫인상:

숨 쉴 수 있는 문화의 풍경

경기도 공연예술에 대한 첫인상은 서울과의 대비에서 비롯되었다. 소수의 특정 지역에 극장이 밀집되어 있고 관객들이 바쁘게 이동하는 서울의 문화 지형과 달리, 경기도는 넓고 분산되어 있으며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공연은 유행이나 명성 뒤에 숨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직접, 담담하게 알려진다. 이런 접근성 덕분에 공연 관람은 특별한 문화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에 참여하는 경험이 된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 경기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규모이다. 이는 물리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규모이기도 하다. 공연장들은 크고 현대적이며 시설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친밀하다. 관객석에는 가족, 노년의 부부, 학생들이 섞여 있고, 이들은 문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이웃처럼 보인다. 공연 전 로비의 분위기는 서울보다 차분하고, 덜 분주하며, 대화가 많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고 사방 어느 쪽으로 나가도, 문화 인프라가 일상 공간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예술회관들은 주거 단지, 공원, 교통 거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들은 고립된 기념물이 아니라 공유된 공간이다. 외국인인 나에게 이런 구조는 무척 신선했으며, 명성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문화 참여 모델을 보여주었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객석.



경기국악원 국악당.



경기국악원 국악당 내부.

경기도 문화의 중심:

수원의 경기아트센터

이 문화 지형의 중심에는 지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가 있다. 경기도는 다양한 도시와 공연장을 품고 있지만, 수원의 경기아트센터는 지역 전체의 기준점처럼 느껴진다. 나는 축구장을 향해 수원을 지나며 이곳을 여러 차례 스쳐 지났고, 그 존재는 늘 묵직하고 익숙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하나의 문화적 닻처럼 인식되었다.

이곳의 공연들은 규모와 접근성, 예술적 야심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의 문화생활을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도시와 관객, 예술적 방향성을 연결한다. 단일한 공연장이기보다는, 경기도 공연예술의 무게 중심에 가깝다.

그 외 경기도 곳곳의 공연장들:

고양아람누리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까지

경기도 북부에서는 고양아람누리가 문화적 관문처럼 느껴진다. 서울과 가깝지만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 공간은 대도시의 밀도와 지역의 여유 사이에 놓여 있다. 나는 쉬는 날 임진각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이곳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고양아람누리의 건축은 자신감을 드러낸다. 큰 공연장과 넉넉한 공공 공간,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지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관객의 익숙함이었다. 클래식부터 현대 공연까지 폭넓은 무대가 이어지고, 관객들은 이 공간을 오래 사용해 온 듯 자연스럽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 투자라는 인상을 준다.

남쪽의 성남아트센터는 또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첨단 도시 개발로 알려진 성남의 이미지는 공연장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며, 운영 역시 전문적이다. 이런 공간의 공연 정보를 역시 길가의 현수막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관객으로서 체감되는 기대치 역시 다르다. 이곳의 공연들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완성도와 야심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과시를 위해 모이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을 위해 온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성남아트센터는 지역 공연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기도 동부의 용인 포은아트홀은 조용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규모 면에서는 고양이나 성남보다 작지만, 지역 중심적인



자전거길로 좋은 수원둘레길. 사진 출처: 경기관광플랫폼.



고양아람누리. 사진 출처: 고양문화재단 공식사이트.



성남아트센터. 사진 출처: 성남문화재단 공식사이트.

성격이 분명하다. 학교와 상점, 주거지를 지나가는 자전거 길 위에서 이곳을 알게 되었고, 문화가 일상의 일부로 작동하는 공간임을 느꼈다. 이곳의 강점은 균형이다.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교육 콘서트, 가족 공연,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부차적이 아니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새로움보다 지속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문화 철학을 반영한다. 이런 공간에서 공연 예술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서쪽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축구 경기를 보러 안산와스타디움을 찾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공간이다. 이곳은 강한 집단적 에너지를 품고 있다. 안산은 다문화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 특성은 문화 공간의 분위기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자전거로 도시를 지나며 여러 언어가 함께 적힌 공연 현수막을 마주하는 경험은, 문화가 다양한 공동체의 것임을 보여준다. 공연장 안에서도 그 개방성은 이어진다. 관객의 반응은 적극적이고 생생하다. 장르를 넘어선 활력이 느껴진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예술이 전통을 보존하거나 고급문화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반영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연히 만나는 공연들

나에게 경기도 공연예술 경험의 핵심은 우연성에 있다. 주요 문화 수도처럼 큐레이션 된 목록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서 읽고,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방식은 문화와의 관계를 다르게 만든다. 소비가 아니라 발견에 가깝다.

이런 접근은 기대치에도 영향을 준다. 사전 정보가 많지 않기에 열린 마음으로 공연을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 종종 높은 완성도와 감동을 경험한다. 외국인의 눈에 경기도의 문화적 힘은 화려한 브랜딩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또한, 경기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 참여형 프로그램, 특정 연령대를 위한 세심한 기획이다. 동시에 실험의 여지도 존재한다. 새로운 형식과 장르, 신진 예술가들이 대도시보다 더 쉽게 무대에 설 수 있다.

경기도의 매력은 특정 스타일에 있지 않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에 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는 명성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모델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



용인포은아트홀 객석, 사진 출처: 용인문화재단 공식사이트.



안산와스타디움, 사진 출처: 트립어드바이저 공식사이트.

세계 속의 문화 거점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는 일본, 유럽, 미국의 수도권 외곽 문화 거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 지역은 국가 문화의 핵심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기반이다. 문화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분산되도록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경기도의 공연예술 시설과 공공 지원 규모는 적어도 영국의 지역 문화 인프라보다 더 훌륭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인재와 자원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독립적인 정체성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세계적 관점에서 이는 분명한 강점이다.

물론 과제도 있다. 서울 중심의 문화 흐름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도시 간 균형 있는 관객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 외부로의 가시성 역시 제한적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런 과제들은 극복 가능하다. 경기도 공연예술은 이미 인프라와 관객, 창작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인식이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ㄷ

경기도의 매력은 특정 스타일에 있지 않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에 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는 명성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모델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

ㄹ

다시 찾게 되는 곳, 경기도

할리우드 영화의 전개처럼, 결국 사랑을 얻기 위해 축구에만 빠져 있던 교양 별로 없는 영국 사나이는 점차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발견한 공연들, 축구 관람을 위한 교환 조건으로 시작된 경험들은 어느새 한국 공연예술의 미래를 조용히 만들어 가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서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서로를 보완한다. 공간과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를 제공한다. 외국인인 나에게 경기도는 주변부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곳이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숨을 고르며 올려다본 가로등의 현수막 하나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폴 카버(Paul Carver)

영국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한국에서 방송인, 유튜버, 프리랜서 번역가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2016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청에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경기 자연 속

그림 같은 문화예술의 마을

‘별난독서문화마을’ 광혜경 대표와의 인터뷰



광혜경 대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파주 법원을 금곡리,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금곡초등학교 자리에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별난독서문화체험장',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별난독서문화마을'이 그 주역이다.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재즈 공연, 어른신들의 합창 무대, 아이들의 그림책 낭독회까지. 책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세대와 경계를 넘은 문화예술 공동체가 다시 꽃피고 있다. "문화예술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곽혜경 대표의 신념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김경수(싸우나스튜디오)



별난독서문화마을 캠핑 사이트.

Q.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혜경 대표입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실용음악과에서 재즈 화성학과 편곡법을 강의하면서 재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5년 '뮤직오션'이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실용음악 입시 가이드북이나 재즈 피아노 교수법 같은 교육 교재를 만들었어요. 실용음악 교수님들과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연 기획 일도 맡게 되었고, 사업 영역이 음악 교육과 공연 기획으로 커졌죠. 2021년에 법인으로 전환했고, 같은 해에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이곳을 운영하게 됐어요.

Q. '별난독서문화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15년 폐교한 금곡초등학교 부지를 '경기도 공공캠핑장 조성 공모 사업'으로 캠핑장으로 조성해 2017년 '별난독서캠핑장'으로 개장했어요. 하지만 초기 운영 업체는 주민들과 갈등 끝에 3년 계약을 마치고 떠났죠. 연기와 냄새, 소음 등으로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이득 없이 불편한만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후 파주시에서 캠핑장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업체를 찾고자 공모를 냈고, 저희가 선정된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의 매력에 이끌렸어요. 리모델링이 예쁘게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잔디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고, 인문 프로그램과 예술 공연을 결합하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확신이 들었

어요. 그렇게 이 체험장을 거점으로 저희가 가진 예술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융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별난독서문화마을'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독서캠핑장'이 '독서문화체험장'이 되었어요. 공간에 '문화 예술'을 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캠핑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예술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즐기는 공간을 만들게 됐죠. 캠핑 당일 오후 2시에는 그림책 읽기, 전래놀이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4시쯤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 국악, 클래식 공연을 열어요. 물론 캠핑 신청자들에게는 모두 무료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천연염색, 도자기, 나전칠기, 커피 바리스타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합창단, 그림 그리기 같은 동아리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지요.

Q. 뮤직오션컴퍼니의 기업 노하우는 별난독서문화마을 운영에 어떻게 녹아 있나요?

제 운영 철학은 "문화예술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경험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연장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어린시절의 문화예술 경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향기롭고 풍요롭게 하는데, 그 경험을 편안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단순히 공연만 보여주는 게



(별난캠핑페스타) 공연 현장.



(마을주민합창) 공연 현장.

아니라, 도서관 프로그램답게 책과 연계하거나 인문학적 접근을 해요. 작곡가 이야기나 음악적 스토리를 풀어내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예술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전공자들에게 단순히 연습실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가이드를 줘요. 일종의 인큐베이팅 과정인 셈이죠. 파주시 내 작은 도서관 곳곳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매칭도 해주고 있지요.

Q. 이곳의 자연환경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멀리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봄과 가을에는 잔디밭에서 공연을 즐기고,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2층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이곳이 폐교라는 점도 특별해요. <별난학예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고 음악·미술·체육 시간을 즐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공간의 역사와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속 시도할 수 있지요.

원래 이곳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이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늘 이용하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자랑할 만한 곳이 있다'라는 자긍심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먼저 캠핑객으로 오신 부모님들의 후기가 정말 좋아요. 여느 공연장 공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가족과 함께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한 어르신이에요. 이곳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다 <어르신 인생노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80대분이셨어요. 맞춤법도 맞지 않고 투박한 글씨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책이 나오고 '작가님'이라고 불러 드리며 차를 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 해에도 참여하길 정말 바라셨는데, 며칠 뒤 돌아가셨죠. 지인이셨던 마을 이장님이 그분의 글을 읽으며 평평 우시던 모습이 정말 잊히지 않아요.

Q. 방치된 시설을 다시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곳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해 준 건 무릎까지 올라온 잡초였어요. 예산에 보조 인력비가 없어서 제가 직접 예초기를 들고 다니며 잔디를 깎았죠. 오며가며 지켜보시던 마을 어르신들은 못미더웠는지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하셨죠. 무엇보다 주민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는데, 그 첫 열쇠는 합창단이었어요. 어르신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무대에도 올렸어요.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드레스를 빌려오고, 화장품 가방을 들고 와서 무대에 오르기 전 속눈썹도 붙여드리고 드라이어로 머릿도 매만져드리면서 무대 준비를 제대로 도와드렸죠. 거의

66

별난독서문화마을은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을 거점으로 뮤직오션컴퍼니의 음악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융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문화예술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99

평생을 논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곁게 차려입고 가족 앞에서 무대에 오르는 일은 특별했어요. 밤새 사진을 찍고 감격스러워 하셨죠.

그 후 어르신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부르기 시작하셨고, 채소, 들기름, 김치 등을 챙겨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별난(독서문화마을)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다 도와주자"는 분위기예요.

Q. '별난독서문화마을'만의 가장 큰 차별화된 매력은?

가장 큰 차별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 공연장에 가려면 특별한 격식을 차려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여기서는 캠핑하러 온 가족이 편안하게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게 중요하죠.

둘째,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프로그램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어요.

셋째, 독서와 예술의 결합. 단순히 공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책과 연계하거나 인문학적 접근을 해요. 작곡가 이야기, 음악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풀어내죠.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폐교 활용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싶어요. (별난학회)처럼 폐교라는 공간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곳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림 동아리 활동 모습.

더 성장하길 바라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이 공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한 분 한 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별난독서문화마을은 OOO이다'라고 정의해주세요.

'별난독서문화마을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책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다.

별난독서문화마을은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을 거점으로 뮤직오션컴퍼니의 음악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융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문화예술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캠핑하러 오는 가족도, 젊은 예술인도, 모두가 이 공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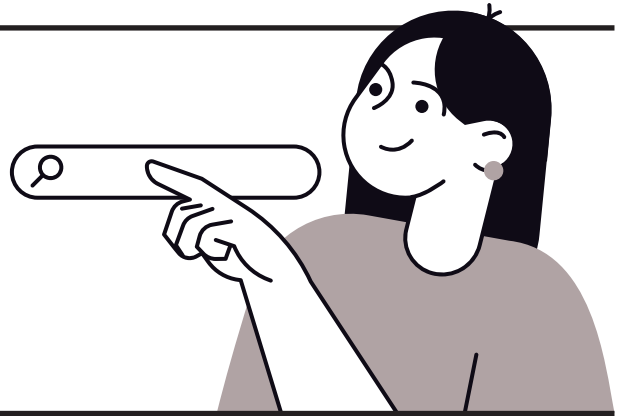
5년간 여기 있으면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알아가다 보니, 제가 이 동네 주민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별난독서문화마을'에서 많은 분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공연장 밖 예술, 일상 속으로 스며든 무대

극장 객석에 앉아 일방적으로 무대를 감상하던 전통적인 공연예술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광장, 지하철역, 심지어 도시 전체까지 오늘의 공연 무대는 점점 더 '정해진 무대'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술이 팝업 스토어, 카페, 지하철역으로 옮겨지듯이, 공연예술도 장소와 시간을 넘어 관객과 예술의 접점을 재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으로 바이럴 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관객을 모으고 있다. 이제 일상은 거대하고 훌륭한 무대다.

정리. 편집실

PERFORMING ARTS BEYOND THE THEATER



지하철을 무대로 한 파리의 메트로 아티스트

파리의 감동은 지하철에서 시작된다. 그만큼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이동 수단 그 이상의 공간이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는 연주자, 무용수, 퍼포머들이 공연을 펼치며, 일상의 동선에 예술을 끼워 넣는다. 특히 파리 지하철에서 공연하려면 파리교통공사(RATP)로부터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 자격을 받으려면 6개월마다 열리는 오디션 통과해야 한다. 오디션마다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한다. 놀라운 가창력과 감미로운 연주 실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전 세계적인 펑크 기타리스트 케지아 존스(Keziah Jones), 프랑스 국민 샹송 가수 자즈(ZAZ) 역시 파리 지하철 뮤지션 출신이다.

www.ratp.fr



도시 전체가 무대인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매년 8월이면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 도심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된다. 1947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8개의 극단이 공식 행사의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체 공연을 올린 것을 계기로 탄생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예술 축제의 시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 축제가 되었다. 이 축제는 극장뿐 아니라 거리와 광장, 카페, 골목까지 퍼포먼스 공간으로 활용하며, 도시 자체를 예술 공간으로 전환해 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www.edfringe.com

사진 출처: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공식사이트.





이동 거점에서 문화공간으로 변하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공연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에서 새로운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Schiphol Airport)이 그중 하나다. 스키폴 공항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환승 공항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인프라로 유명한 공간이기도 하다. 공항 터미널과 대기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 및 소규모 공연이 펼쳐지며, 항공 여행객들은 탑승 전후로 무료 음악 공연, 클래식 연주 등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공항 내 미술관과 연계된 라이브 공연,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연주, KLM 오케스트라 연주 등이 유명하다. 공연은 이동과 대기라는 일상의 공간을 특별한 문화 이벤트로 바꾼다.

www.klmorkest.nl

사진 출처: KLM 네덜란드 항공 공식사이트.



보행로를 특별하게 채우는 서울시 <문화로 아금아금>

도심 곳곳에서 시민이 일상 중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로 아금아금>은 점심시간 광화문 광장, 퇴근길 을지로 거리, 주말 오후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를 무대로 삼아 공연을 펼친다. <구석구석 라이브>는 골목길과 동네 공원까지 찾아가며 생활권 깊숙이 예술을 스며들게 하고, <서울거리예술 축제>는 매년 가을 서울 전역을 축제의 무대로 만든다. 이러한 도시 기반 공연은 예술 관람을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우연한 일상과의 접점으로 만든다. 관객은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책하며 만나는 음악-공연을 경험하게 된다.

culture.seoul.go.kr

사진 출처: 서울문화포털 공식사이트.



호수 위에 펼쳐지는 장엄한 무대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

이보다 아름답고 압도적인 공연 무대는 없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의 보덴호(Lake Constance) 수면 위에는 매년 여름 거대한 플로팅 스테이지(Floating Stage)가 등장한다. 1946년 시작된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 Festival)은 호수 자체가 무대 배경이자 음향 장치이다. 이것은 공연예술이 자연과 어디까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년마다 새롭게 설치되는 압도적인 규모의 무대 세트는 공연이 없는 낮에도 그 자체로 거대한 공공 미술 작품이 된다. 호수가 산책로를 걷는 시민과 관광객은 무대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경관이라는 일상 속에 예술을 담은 예술과 환경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www.bregenzfestspiele.com

사진 출처: 브레겐츠 페스티벌 공식사이트.



예술가들의 무대이자 예술 생태계 허브가 된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아트센터의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획일화된 무대에서 벗어나 야외 공간, 광장, 도심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공연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생활권 속 예술로 확장하려는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전략이기도 하다. 가족 단위 방문, 우연 관객 유입 및 온라인 콘텐츠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며, 궁극적으로는 공연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한 수다. 예술 경험의 문턱을 낮춰 언제든 부담 없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관객층을 넓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교차 경험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층 폭넓은 문화 향유의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

www.ggac.or.kr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환대'의 시작

모네의 <생 라자르 기차역>이 담아낸 근대의 화려함 뒤편에는 일등석과 삼등석의 장벽이 있는 도미에의 <삼등열차>가 있었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물리적 문턱 대신 제도와 인식 속 보이지 않는 배리어 안에 살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와 장애인 오케스트라, 청각장애 아티스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장벽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기차역>, 1877년, 캔버스에 유채.

기차와 삼등열차: 장벽/등급의 체계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가 1877년에 그린 <생 라자르 기차역(Gare Saint-Lazare)> 연작은 19세기 후반 산업화한 근대 도시 파리의 역동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837년 준공된 생 라자르 역은 삼각의 맞배 지붕형 철골 구조물로, 천장은 투명 유리로 덮여 있어 증기기관차

들이 내뿜는 수증기와 쏟아지는 햇빛의 어우러짐이 미묘한 환상적 감각을 유도하는 장소였다. 수증기와 빛으로 인해 뿌연 안개가 덮인 듯한 공간은 빛의 변화와 인상을 따르는 데 집중하였던 인상파 화가에게는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당시 철도와 기차역, 그리고 증기기관차는 이전 시대의 도로, 건축물, 교통수단과는 용도와 형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철도와 기차역, 기차는 흙길을 말 마차로 다니던 사람들에

게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 장치 같은 것이었다. 철도와 기차역, 기차는 눈부신 속도로 자연 속을 돌파해 전혀 낯선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해 주는 신기한 포털(portal)의 역할을 했다. 기차역의 분주함과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감을 포착한 모네의 <생 라자르 기차역>은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의 선언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차역의 유리과 철골 구조물, 그 안으로 쏟아지는 빛과 섞이는 기차의 증기는 모두 19세기의 새롭게 개발된 산물들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것이었으나, 모네의 그림 속 기차역은 나무 등의 자연 재료에 비할 바 없는 단단한 철골 구조물과 채광을 적극적으로 돕는 유리, 그 안으로 쏟아지는 빛과 섞이는 기차의 하얀 증기는 다분히 새롭게 도래한 편리한 세상, 흥분이 가득한 환상적 세계의 표상과도 같았을 수 있다. 37살의 모네가 그린 <생 라자르 기차역>은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이 품었던 근대 도시 파리가 가진 속도,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흥분된 현대 도시 사회의 매력 등이 함축적으로 묘사된 작품이다.

모네의 <생 라자르 기차역>이 새 시대의 개막에 들뜬 사람들의 고조된 흥분과 기대, 환상을 주목하며 이를 낭만적이거나 매혹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라면, 풍자화가이기도 했던 사실주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1879)가 그린 <삼등열차(The Third-Class Wagon)>(1862)는 새 시대를 견인했던 기계, 속도, 에너지 등의 '효율성' 뒷면에 가려진 '배타성'의 정체를 질문하고 있다.

도미에의 <삼등열차>는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이 좋은 일등과 이등석의 객실에 대비되는 열차 객실이다. 프랑스 사회의 계층적 구조와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삼등열차>는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삼등석 객실 풍경을 그리고 있다. 승객의 대부분인 노동자들을 포함해 남녀노소가 비좁은 객차



오노레 도미에, <삼등 열차>, 1862년경, 캔버스에 유채, 90×65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안에 어울린 채 열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이들의 표정은 엔지 무표정하고 찌든 모습들이다. 모네가 그린 환상적인 분위기의 <생 라자르역> 풍경에선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객실 내 어두운 분위기가 화면 전체를 메우고 있다.

그리고 보면, 사회경제적 가치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일등석, 이등석, 삼등석으로 등급화된 기차는, 이른바 사회구조의 편리와 효율적 운영이라는 사회적 기준 아래 물리적·심리적·제도적 장벽(Barrier)을 세우고 '다수자', '성인·비장애인' 중심으로 체계화된 일상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다. 근대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사회구조의 효율성과 대다수, 성인·비장애인 중심의 편리함을 위해 '소수자', '고령층·어린이·약자', '장애인'의 불편과 고립, 소외를 인식하지 못했고 외면해 왔다.

장벽 없는 사회, 문화예술계의 실천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장벽,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를 뜻하는 '프리(free)'의 합성어로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주는 장벽을 제거하자는 의미다. 어느 대학신문에 따르면, 이 용어는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제출된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서 비롯됐다. 그렇다 보니 초기 배리어프리는 주로 물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경사형 도로, 점자블록, 저상버스 등이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제도나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자격 취득이나 시험을 제한했던 제도를 개선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도지침을 수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연극이나 영화 등의 공연을 개발하고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콘텐츠 소비트렌드 연구>(2026년 1월 발간 예정) 조사는 최근 영화에 대한 소비 환경과 기호, 행동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경향으로 여가 활동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장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 매체 환경의 변화는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영화, 이른바 '배리어프리 영화' 제공으로 이어

* 서울시립대신문(<http://press.uos.ac.kr>) 참고 인용.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지게 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자, 대사, 음악 등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화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를 말한다.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서도 제공하는 자막, 화면해설도 모두 배리어프리다. 이 같은 여가 활동의 구조 변화로 배리어프리 영화 제공에 대한 의무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12월 창단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장애인이 창작 주체인 장애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가수 여자친구 예린과 협업한 음원 〈나의 하늘을 담아〉의 발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뮤크닉'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깨고 전문 예술 창작 주체·단체로서 '배리어프리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오케스트라 활동은 단원들 개인의 자립과 예술적 잠재력 등의 정서 회복 등을 견인했으며, 이들의 음악과 공연을 통해 위로와 현대의 실천이 공동체 모두의 몫임을 인식시켜주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기대는 경기도가 오케스트라 명칭의 도민 공모 선정, 후원·재능기부를 유도하는 서포터즈 제도의 도입 등 도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운영하면서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를 위한 실천으로써 배리어프리를 지향했던 것에 있다.

한편, 태어난 후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청각장애인 가운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미술가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 b. 1980)의 예술세계는 '배리어프리'에 대한 일반적 범주의 허술함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를 모색하게 한다. 재미교포 3세이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틴 선 킴은 자신은 '소리'를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 〈모든 삶의 기표〉, 2022. 전시장 바닥에 수화 그림이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 장면. 사진 출처: 필자 제공.

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일상 속에서 소리에 의해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소리를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스피커의 진동을 활용한 〈스피커로 그림 그리기〉, 목소리를 녹음하여 높낮이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피아노 줄의 떨림을 퍼포먼스화한 〈페이스 타임 시그니처〉와 같은 작업이 그 예이다. 그녀는 또한 '소리'와 함께 청각장애인 사회가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 '수화언어'의 체계와 전달 방식 등을 탐구한다. 드로잉, 설치, 비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작품 〈모든 삶의 기표〉(2022)는 미국 수화언어 내에서 숫자가 세어지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수어는 미세한 동작 차이로 완전히 다른 수적 개념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전시장 표면에 쓰인 단어와 그 위를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이는 수어 역시 일반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에 기반을 둔 언어 체계로서 국가마다 고유어 언어로 소통된다고 역설한다. 미국수어, 한국수어, 일본수어... 작가는 벗어나야 할 '장벽·장애물·배리어'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고정화된 우리의 인식과 관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아가 생긴 에이아이(AI)도 곧 개발될 것이라 하고, 날마다 첨단화된 키오스크, 앱을 통한 소통방식의 등장으로 망설이고 주눅이 드는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꼭 발달하는 기계 기술 탓일까? 장벽·장애물·배리어를 쌓아가는 내 굳은 인식 탓은 아닐까? 어쩌면, 진짜 '배리어프리'는 내가 아닌 당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서로를 확대하려는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내가 쌓은 장벽·장애물·배리어를 걷어 버릴 준비, 실천이 필요하다.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GGAC

STORY

ZOOM IN

관객 기다리는 공연장으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경기아트센터 냥이 직원들의 출근기

GGAC NEWS

CALENDAR

EPILOGUE



관객 기다리는 공연장으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경기아트센터 냥이 직원들의 출근기



경기아트센터와 그 옆 효원공원을 오가며 머무르는 고양이들이 있다. 어느 직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의 하루를 포근하게 채워주는 존재들. 이곳의 고양이들은 말없이 일하는 경기아트센터의 가장 오래된 동료다. 귀여운 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출근 예정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 09:10

냥~.
오늘도 제일 먼저 왔다.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할 즈음, 나는 이미 오래된 내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다.

공연장 쪽을 훑고, 사무실 쪽을 또 한 번 훑고 살핀다. 오늘도 이상 없음.

사람들이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넌다.

“오늘도 출근했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니야옹~”

🕒 10:30

“내가 다 보고 있다고. 거기 늦은 사람, 어서 서두르라고.”

오늘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무대 리허설이 있는 모양이다. 늘 연습실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분주히 공연장으로 향한다. 귀를 기울이면 음악이 귀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한다.

햇살마저 때사롭게 내리쬐다.

몸을 웅크리고 잠시 낮잠에 배바진다.

최초의 관객으로서, 나는 이 공연 연습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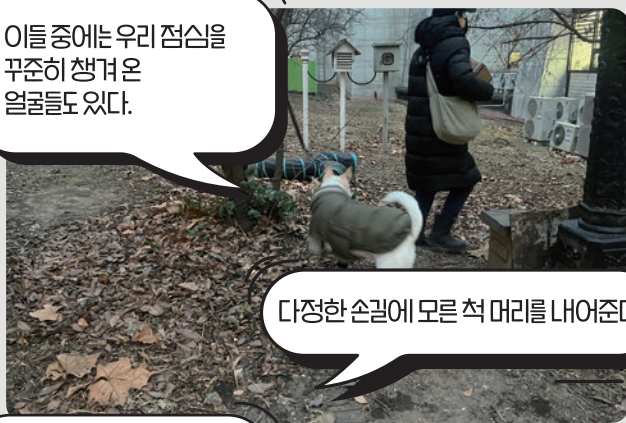
🕒 12:20

모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익숙한 얼굴에는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점심이다.
내 동료들이 모인다.

이들 중에는 우리 점심을 꾸준히 챙겨온 얼굴들도 있다.



다정한 손길에 모른 척 머리를 내어준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들리는 듯하다.



🕒 14:50

“이런, 내가 나서야 하는 걸까?”



오후에는 극단 연습이 또 한창이다.
가장 햇빛이 좋은 자리를 찾아 공연 연습실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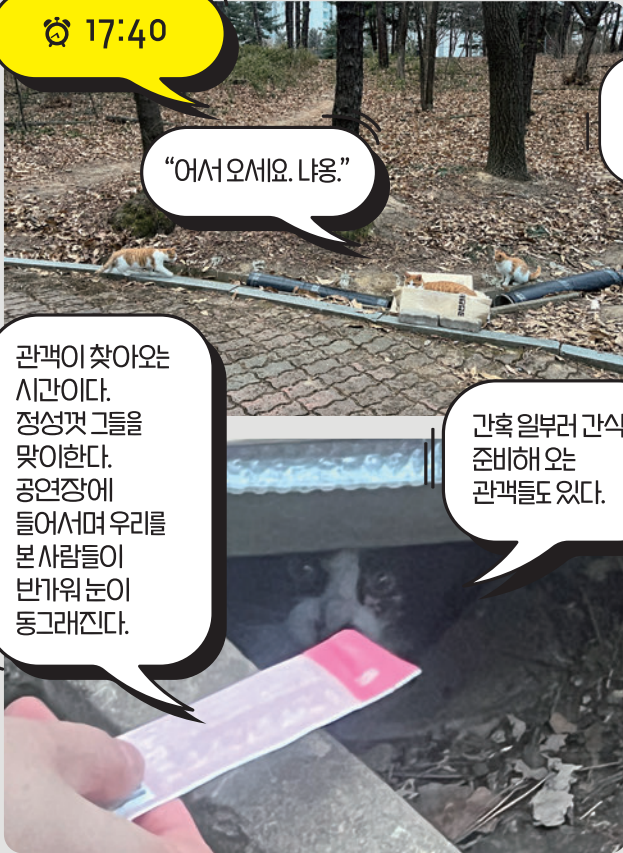
그 장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차례 잔소리를 퍼부어 보지만, 그들에게 고양이 울음일 뿐이다.



일부러 엄한 표정을 잔뜩 지어본다.



🕒 17:40



“어서오세요. 나옹.”

나와 내 동료들은
간식에 좀 약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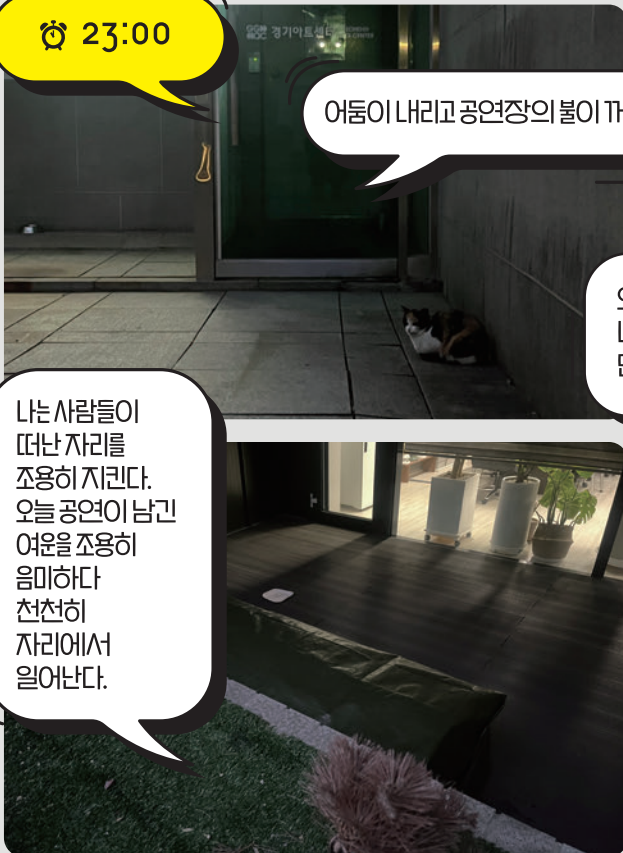
간식을 받는 대신,
사람들이 즐거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더 힘을
낸다.

관객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정성껏 그들을
맞이한다.
공연장에
들어서며 우리를
본 사람들이
반가워 눈이
동그래진다.

간혹 일부러 간식을
준비해 오는
관객들도 있다.



🕒 23:00



어둠이 내리고 공연장의 불이 꺼진다.

오늘도 좋았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이곳과 함께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조용히 지킨다.
오늘 공연이 남긴
여운을 조용히
음미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2026 우수
레퍼토리
다시보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극단비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뮤지컬 선정작

MUSICAL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cast

선창용

박웅서

이영록

이재은

강한별

신혜선

한유채

2026.2.28.(토)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주최/주관 경기아트센터 극단비유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 만원의 행복석 1만원 관람연령 10세 이상 관람가 예매 NOLticket ticketlink

문의 경기아트센터(ggac.or.kr / 031-230-3264)

경기아트센터,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시작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공공 공연장과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을 거점으로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상주하며 창작·공연·관객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공연장 활성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단체당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 내외로, ▲일반형(7천만 원~9천만 원 미만)과 ▲클라우드 펀딩형(9천만 원~1억 3천만 원 미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과 상주 협약을 체결한 단체여야 한다. 협약을 맺는 공연장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상주 공간을 갖추고 상주단체 운영이 가능한 공공 공연장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경기도 공연 유통 플랫폼(G아트마켓·G아트어워즈)과의 연계 지원이 새롭게 도입돼, 상주단체의 작품이 어워즈 심사와 아트마켓 출품으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우수 공연 수상 및 상금 수여, 레퍼토리 피칭, 후속 제작·투어 지원 등 실질적인 유통 확장과 국내외 진출 지원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1월 21일(수)부터 2월 3일(화) 오후 5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예술인을 위해 1월 20일(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8일(수)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경기아트센터, 2026년 신년음악회 선사

경기아트센터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여는 (2026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를 1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였다.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포디움에 섰으며, 2024년 송년음악회에서 경기 필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다시금 호흡을 맞췄다.

공연은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가 편곡한 바흐의 (세 개의 코랄 전주곡)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바흐의 종교적이고 경건한 오르간 선율을 레스피가 특유의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관현악 기법으로 풀어내어,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이 공연에서 선우예권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선율, 화려한 기교와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대곡이다.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됐다. 교향곡 6번 (비창)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1악장과 2악장에서는 다소 어두운 정서가 표출되고, 3악장에 이르러 리드미컬한 왈츠 선율로 전환되며 마지막 4악장에서 희망과 생기를 담은 선율로 마무리된다. '어둠'에서 출발해 '승리'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교향곡의 서사를 따르지만, 엄격한 형식과 구조보다는 다채로운 감성과 자유분방한 에너지, 극적인 강렬함과 민요적인 천진함, 낭만적인 서정성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경기필이 자랑하는 대표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2026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는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클래식을 처음 감상하는 관객들에게도 신년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를 선사했다.



경기팝스앙상블, 2026년 경기도예술단 경기북부 첫 공연

경기아트센터 경기팝스앙상블이 지난 1월 17일 남양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특별공연 (팝스콘서트)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뜻밖의 음악선물, 마음을 씻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클래식콘서트 관(館).세(洗).페(Festa)의 2026년 첫 공연이다.

이 공연은 경기도예술단의 2026년 첫 경기 북부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장을 벗어나 도내 곳곳에서 도민과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공공예술단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날 (팝스콘서트)에서는 조용필의 전설적 명곡 (바람의 노래)부터 최신 K-POP까지 폭넓은 레퍼토리가 연주됐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객과 호흡하는 경기팝스앙상블만의 매력을 선보였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 12월 'G-ARTS' 브랜드를 선포하고, 도내 31개 시군을 잇는 공연 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예술단 예술즐거찾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사업 등이 이러한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경기도형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예술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경기도예술단은 지난해 도내 25개 시군에서 총 83회의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외부 공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방침이다.



2026. 02+03 | FEBRUARY+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	2 연극 (만선)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3 연극 (만선)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6 뮤지컬 (레드북)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7 뮤지컬 (레드북) 14:00, 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8 뮤지컬 (레드북)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아즈마 아키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 : 지브리& 월드무비 OST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2	23	24	25			28 뮤지컬 (메리골드)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3/1	2	3	4			7 이재훈 전국 투어 콘서트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8	9	10	11		13 경기필 마스터즈시리즈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서가콘서트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5 양인모&찰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6	17	18	19	20	21 뮤지컬 (헬로카봇) 12주년 스페셜 공연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2 뮤지컬 (헬로카봇) 12주년 스페셜 공연 11:00,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3	24	25	26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버닝 : 타오르는 불꽃)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7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버닝 : 타오르는 불꽃)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8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버닝 : 타오르는 불꽃)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뮤지컬 (넘버 블록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9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 버닝 : 타오르는 불꽃)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뮤지컬 (넘버 블록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0	31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현

정상훈

오세철

안두호

박솔지

마 나 선

극작 김원 / 연출 정상훈

2026.2.2 (월) - 2.3 (화)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관람시간 |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전석 | 10,000원 관람연령 | 15세 이상 관람가

주최 | (재)경기아트센터 주관 | (재)경기아트센터 출연 | 극단 돌을양지



계절이 변하듯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자연이 자신을 감추지 않듯-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때,
 예술은 조용히 각자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무대 위 이야기부터 일상 속 작은 감동까지,
 지금의 나를 응원할 거울을 들여다본다.

1월 7일 <Art Talk 별난독서문화마을 곽혜경 대표> 촬영 현장에서

INMOYANG

2026. 03. 15. SUN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MOZARTEUM ORCHESTRA SALZBURG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